

201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2014년 7월 26일(토)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필기구는 배부한 검정색 볼펜이나 개인 연필 가운데 한가지 필기구로만 계속 사용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0' 점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문제지를 찢거나 분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8. 감독위원이 시험 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9.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 수를 확인합니다.
10.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설문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공 통 문 항

<가> 평생 동안 ‘인간은 선하다’라는 이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이론이 옳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것이다. 반대로 ‘인간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 이론이 옳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것이다. 박애주의자이든 인간 혐오주의자이든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걸러내고, 대신 자기들의 세계관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증거들만을 간직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신문이 ‘구글은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다면, 이 기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기업문화를 갖고 성공한 두 세 개의 다른 회사들(일명 ‘확인된 증거’)을 찾아내려고 하는 반면, 그 반대의 사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즉 창의적인 문화를 장려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회사들이나 승승장구하지만 창의적인 문화를 장려하지 않는 회사들(일명 ‘확인되지 않은 증거’)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들어맞는 회사는 많이 있다. 단지 그들은 이런 회사들을 일부러 지나쳐 버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신문기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그런 보호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인터넷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유대감을 갖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을 확고하게 입증해주는 블로그를 방문하고 자신의 생각 또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추어 전달한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게시판에 올릴 수 없게 차단한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 안에서만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확증편향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나>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는 1972년에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에서 어떻게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집단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제니스는 ‘집단사고’를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하자면, ‘집단사고’란 낙관론에 집단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 호감과 단결심이 크면 클수록, 독립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집단사고에 의해 대체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집단사고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외부를 향해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든다.”

미국에서 나타난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케네디 행정부의 피그스만 침공사건,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정책,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모든 사건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왕따’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의심을 억누를 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집단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상례적이며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 ‘집단사고’는 시간 절약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조차 그룹 내의 화합적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레진저는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가장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물리곤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서로위키도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사 처음에는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늬만’ 합의를 이루었다 해도 집단이 응집력을 발휘하게 되면, ‘무늬’는 실재가 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품고 있을 수 있는 의심이나 회의는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구성원들이 이미 공통된 사고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통념에 도전하는 정보는 배제되거나 오류로 치부됨으로써 사람들은 토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신념을 합리화하고 공고히 하게 된다. 집단사고가 행해지는 곳에서 토의는 생각을 여는 효과를 낳는 게 아니라 닫아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다>

子張學于綠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聞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 논어 『爲政편』 중에서

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詩云.”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친근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자함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혜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차렸는데도 답례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경의를 반성하라. 행위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천하가 이에 돌아온다.

* 맹자 『反求諸己章 第四』 중에서

1.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가> 스물여덟. 이제 막 서른을 바라보는 내 몸이 알맞게 그리고 충분히 익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간 몇 번의 연애가, 구직이, 이사가 있었다. 그리고 예전보다 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 몸은 어리둥절한 서울에 갓 도착한, 스스로의 구매력을 어색해하던 스무 살 때보다 건강하다.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 소비는 조심스럽고 수줍게 진행됐다. …(중략)…한번 높아진 눈은 다시 낮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직장 동료들의 조언도 한몫했다. 그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식의 고집과 풍습을 공유했다.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은 비싼 걸 메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좋은 걸 써야 한다, 항상 입는 코트는 유명 브랜드로 걸쳐야 한다, 여자는 머릿결이 생명이다, 피부가 명함이다 등. ‘무엇 무엇만은’의 목록은 점점 늘어 갔다. 모든 게 중요하고 많은 게 필수였다. 나는 그 필요에 쫓기지 않았다. 필요에 의지했다. 소비는 내가 현재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나 역시 그 신진대사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리하여 뭔가 지불할 때, 나는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았다. …(중략)… 나는 내 또래 여자들의 유행과 문법을 잘 따라가는 편이었다. 입사한 뒤 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방을 옮겼다. 서울 번두리에 자리한 그저 그런 원룸이었지만 그간 세를 산 집 중 가장 넓고 쾌적한 데였다. 처음에는 안도가 그 다음엔 욕심이 찾아왔다. 정착의 느낌을 재생반복하기 위해 자꾸 이것저것을 사들이고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월급 날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조금 더 예쁜 것, 조금 더 세련된 것, 조금 더 안전한 것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나> 실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통제한다. 청년 실업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은 청년 실업의 예외가 되기 위해 스펙을 관리한다. TV 경제뉴스에서 아나운서는 실업률의 추이에 대해 건조한 목소리로 보도한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시청자에게 실업이라는 단어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취업은 칼뱅주의자들의 은총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조 조정의 칼바람이 한 직장에 몰아친다 하자. 구조 조정에 의해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은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일 것이다. 은총 받지 못한 사람은 구조 조정에 의해 직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과연 나는 은총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직장인들은 은총 받은 것인지를 의심하는 칼뱅주의자처럼 두려움에 떠난다. 만약 그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은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는 곧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는다. 해고 통지를 받지 않기 위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한다. 적어도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지니까.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일을 더 오랫동안 하고 더 큰 압력을 참아 낸다. 그만큼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은 엄청나다.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아남는 거다. 경주에 남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이 은총 받았음을 입증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주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경주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공급한다. 은총을 받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칼뱅주의자처럼 경주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들은 일터 외부에서도 혹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남은 시간을 찾아내 자기월급의 일부를 이른바 자기 계발의 명목으로 재투자한다. 자기 계발에 돈을 쏟아 부을수록 개인은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다. 개인은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리스크 관리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의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다> 얼마 전에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에 관한 TV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삼십대 중반의 남성 노숙자의 이야기에서 많을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남자는 공원에서 잠을 자면서 쓰레기통을 뒤져 주간지 등을 주워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시청에서 한 달에 며칠 동안 도로 청소를 하는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눈시울을 닦으며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1년 전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청에서 준 일을 하던 도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슨 말인가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수고하십니다”와 비슷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대답한 그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태어나서 좋았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울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보통 사람처럼 감정이 돌아온 건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행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노숙자이고 어쩌다 지나갔을 뿐이라면 말을 걸어 주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듣게 된 것이겠지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는 버림을 받았어’,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합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동료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비로소 ‘거기에 있어도 좋아’라는 인정을 얻게 됩니다. 흔히 직장을 얻거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에 나온다’라고 말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사회인’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 구실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는 깊은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 가족관계 등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속의 관계도 ‘상호 인정’의 관계이지만 이 경우 나는 ‘배려(위로의 눈길을 향하는 것)’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던 그가 들은 말은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2.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가>의 서술자 ‘나’와 <나>에 기술된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1,000±100자)